

		보 도 자 료		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인천광역시	
		배포일자	2021년 5월 17일(월) 총 2매		
담당 부서	공원조성과	담당 자	• 민간공원담당 문윤구 ☎458-7041 • 담당자 양수은 ☎458-7046		
사진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시,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지역 업체 참여확대 방안 논의

- 도시공원 시공사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논의 민간공원분야 간담회 개최 -
- 인천시 관내 우수한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할 것 -

인천광역시(박남춘 시장)는 17일 14시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관내 4개소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시행사 및 시공사와 함께 ‘인천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’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고 밝혔다.

인천시 관내 무주골공원, 연희공원, 검단16호공원, 송도2공원 등 4개소를 대상으로 시와 민간시행자가 협약 체결해 공동 시행중인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민간 시행자가 총 1조 2,709억 원을 부담해 부지면적의 70%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한 후 시에 기부채납하고 잔여 부지에 대해 3,400여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대규모 건설 사업이다.

이날 간담회에서는 최도수 시 주택복지국장과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시행(시공)사인 무주골파크(주), 연희파크(주), 검단16파크(주), 서해종합건설, 호반건설 임원 및 관계자가 참석해 지역 업체 수주 확대 및 지역자재·인력·장비사용 등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.

최도수 시 주택복지국장은 “작년 12월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 무주골공원에 대해 시와 시행사인 무주골파크(주), 시공사인 한화건설과 지역 업체 참여방안을 적극 모색한 결과, 5월 현재까지 발주한 하도급 계약의 75%를 인천 지역 업체와 체결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”고 말하며 “연희공원 등 올해 착공이 예정된 3개소 사업장도 쾌적한 주거환경과 지역 건설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시공원을 조성해 달라”고 당부했다.

이에 대해 시공사 임원들도 “인천시 관내 우수한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된 지역 건설 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앞장서겠다”고 약속했다.

<붙임> 1. 사진자료

■ 사진자료

